

홍명보호, 가나전 승리로 ‘사상 첫 포트2’ 굳히기 도전

이탈리아, 노르웨이에 패…한국 배정 가능성 높아져

오늘 월드컵경기장서 오현규 최전방…손흥민 등 기대

사상 첫 포트2 진입을 눈앞에 둔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 축구대표팀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벌인 불가리아와 평가전에서 후반전 손흥민(LAFC)의 프리킥 골과 조규성(미트윌란)의 부상 복귀 골로 2-0 승리를 따냈다.

한국이 이번 가나전에서도 승리를 따낸다면 처음으로 평가전 2연전 연승을 기록할 수 있다. 또 이번 경기는 올해 마지막 A매치이기도 하다.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 목표포였던 포트2를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17일(한국시간) 스타디움 주세페 메아차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1조 8차전 원정 경기에서 노르웨이에 1-4로 패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조 2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다.

한국 입장에선 반가운 결과다.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는 이번 월드컵은 12개 팀씩 4개 포트로 나뉘어 조 추첨을 한다. 개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을 제외한 팀들은 FIFA 랭킹 순으로 포트를 배정받는다.

본선 조 추첨 일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됐으나, FIFA 랭킹 9위 이탈리아가 치러야 할 유럽 플레이오프는 내년 3월, 결국 이탈리아는 포트4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포트2 마지노선이 FIFA 랭킹 24위까지로 낮아졌다.

FIFA 랭킹 22위 한국(약 1597점)은 25위 호주(약 1578점)과의 격차가 크다. 18일 가나에 패하더라도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사상 최초로 월드컵 포트2를 사실상 확정지은 셈이다. 포트2의 경우 강호들과 같은 조에 묶일 확률을 크게 낮춘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안심할 수는 없다. 가나전에서 최대한 승리를 따내는 것이 순위 굳히기에 유리하다.

가나는 73위로 한국보다 51계단이나 낮다. 하지만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3승 4패로 밀린다.

교무적인 것은 공격수 조르당 아우(레

스터시티),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바이레알) 등 일부 핵심 자원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미드필더 아부 프렌시스가 직전 일본과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해 전열에서 이탈한 것 또한 가나에 악재다.

하지만 양투안 세메노(본머스), 카말딘 솔레마나(아탈란타)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방심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오현규(헝크)를 최전방에 내보낸다. 오현규는 홍명보호 출범 이후 6골을 넣으며 몰오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대체불가 에이스 손흥민은 물론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생제르맹) 등 유럽파 선수들이 득점 도우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전에서 썩기골을 넣은 조규성 역시 투입 대상이다.

그가 이번 가나전에서도 투입돼 연속골을 넣는다면 홍명보호 원톱 경쟁에도 불이 붙을 예정이다.

골키퍼 자리에는 조현우(울산)의 출전이 점쳐진다.

이번 가나전은 홍명보호가 복종미 월드컵 전 국내 팬 앞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 될 수 있다. 월드컵 전 내년 3월 A매치 기간에는 유럽 원정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홍명보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가나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오현규, 박진성, 배준호 등 선수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민

박찬호 두산행 임박…KIA 유격수 대체 자원은?

4년 80억 FA계약 유력…김규성·박민 등 대안 논의

공격력·경험 부족 문제…아시아쿼터 영입 방안도

FA 최대어 박찬호의 두산행이 임박했다. 주전 유격수를 놓치게 된 KIA타이거즈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까.

17일 야구계에 따르면 두산과 박찬호 측은 4년 80억원 수준의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재 읍전 등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2차 5라운드 50승위로 KIA에 입단한 박찬호는 2019년부터 주전으로 뛰었다. 그의 1군 통산 타격 성적은 1088경기 3579타수 951안타 23홈런 353타점 타율 0.266 OPS(출루율+장타율) 0.660. 올해에는 134경기에서 148안타 5홈런 42타점 타율 0.287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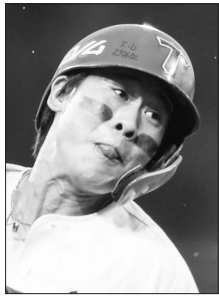
박찬호의 타격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수비에서는 확실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수비상이 신설된 지난 2023

년부터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까지 거머쥐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욱이 그는 통산 187개의 도루에 성공하는 등 주루 능력도 갖췄다.

KBO리그 내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선수라는 뜻이다. 이에 박찬호가 이탈할 경우 KIA에게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KIA는 마땅한 유격수 대체 자원이 없다. 김규성, 박민, 정현장 등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박찬호의 자리를 메울만한 자원은 아니다.

김규성은 오랫동안 백업요원으로 활약하면서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줬다. 다만 타격과 주루에서는 주전급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통산타율이 0.210에 그치고, 도루 또한 14개뿐이다.



박민 역시 수비력은 탄탄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고 타격(통산 117경기 타율 0.205) 보완이 필요하다. 올 시즌 트레이드로 데려온 정현장은 신인선수다. 능력치는 좋다고 평가받지만, 주전 후보로 올라가려면 이른다.

결국 KIA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아시아쿼터다. 다가오는 시즌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외국인 선수 3명 이외에 아시아쿼터 1명을 보유할 수 있다. 이미 한화, kt, SSG 등이 영입을 마쳤다. KIA도 일본 등 유격수 자원이 많은 곳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유격수 공백 메우기라는 최대 현안을 가진 KIA가 어떤 선택을 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 성료

“화합·열정의 장…시민 건강증진 앞장설 것”

시민 1500여명 참석

종합우승 서구 차지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빛고을체육관, 진월국제테니스장, 방림초등학교, 풍영초등학교 등 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경선 광주시교육감 등을 비롯해 5개 자치구 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 등 1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 광주댄스포즈연맹 팀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5개 자치구 대항전으로 어울림경기(한마음 장애물 계주, 단체 줄다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빛고을체육관, 진월국제테니스장, 방림초등학교, 풍영초등학교 등 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리기, 바람잡는 특공대, 대드벌룬 공중부양)와 가요제로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자치구 대항전으로 치러진 농구는 서구가, 테니스는 북구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농구와 어울림경기에서 선전한 서구가 차지했다. 농구는 준우승을, 북구가 3위, 동구와 광산구가 각각 4~5위를 기록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시민들이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됐다. 안전사고나 부상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돼 기쁘다”며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21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이 AI스마트·문화·예술·시민참여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은행 조성현·진성익, 국제배드민턴대회 준우승

결승 인도네시아팀에 기권패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조성현과 진성익이 국제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성현-진성익 조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GOR AMONG RAGA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 32강에서 조성현-진성익 조는 인도네시아 알 파우잔 함바-레날디 사모시르 조를 2-0(21-16 21-14), 16강에서 인도네시아 아데르요아-헤르디안사 조에게 2-1(13-21 21-17 21-15), 8강에서 대만 지아옌린-린용성 조에게 2-0(21-18 21-17) 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인도네시아수바지오-탕카 조와의 접전 끝에 2-1(22-20 17-21 21-15)로 결승에 올랐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에르위안사-마르비노 조를 만나 1계임을 22-20으로 승리했다. 이후 2계임에서 19-21로 아쉽게 패했다. 이 과정에서 조송현이 무릎에 불편함을 느꼈고,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기권을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를 은메달로 마무리 지었다.



조성현-진성익 조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GOR AMONG RAGA 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리 지었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감독은 “태국 인터내셔널 시리즈 동메달 이후 이번 대회 은메달로 올해 두 번째 국제대회 남자복식 메달을 따내게 됐다. 고생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조성현

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 다만 다가올 국가대표선발전 대비와 함께 선수 보호차원에서 기권하게 됐다. 앞으로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